

막바지 여름휴가, 문화여행 떠나요

익산시, 배꼽 잡는 개그 공연부터 영화·체험·인문학 강좌까지

익산시가 8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늘과 해당 주간(8. 26~9. 1)에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보석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여름의 여운을 달랠 예정이다.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오늘 오후 7시 30분 '웃찾사 레전드 테니스 쇼'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개그맨 안시우, 이수한, 이용성이 SBS 웃찾사 인기코너들을 각색하여 관객 중심의 공연장 버전으로 재탄생시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로 사전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에서는 오늘 오후 7시 '조선시대 초상화의 이해'란 주제로 권혁산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특별강의가 열린다.

이번 강의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강의를 통해 미술관에서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익산문화예술클러에 위치한 익산아트센터에서는 29일 오후 7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주제로 인문학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소설 '나라 없는 나라'의 저자이자 제5회 혼불문학상 수상자인 이광재 작가와 함께 진행

되며, 사전 참가신청자 30명에게는 작가의 저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그밖에 사인화도 예정되어 있다. 사전 접수는 익산아트센터 또는 (재)익산문화관광재단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 연주홀에서 28일 오후 4시 20분 청소년음악회 악동 삼형제의 신나는 여행이 열린다. 팰리체 챔버오케스트라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악과 서양악기의 어울림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한박물관에서는 28일 오전 10시 오감민족공예체험 '더위 물리치는 압화 전통부채 만들기'를 진행한다.

사전에 선착순 20명의 참가자를 접수하여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박물관에서는 31일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개방하며, 관람료는 30~50% 할인된다.

또한 천연 보석 팔찌, 공룡화석 지우개, 이니셜 은반지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이니셜 은반지 만들기는 체험비가 50% 할인된 8,000원으로 즐길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일 마지막 수



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시는 매일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새로운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나요”

국립익산박물관, 신관 증축에 따른 현 박물관 소장품 이관 위한 임시휴관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신상효)은 현재 증축 중인 신관의 준공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시 및 소장품 이관 등 개관 준비를 위해 현 박물관 상설전시실을 임시휴관 한다고 밝혔다. 임시휴관 기간은 9월 16일부터 2020년 1월 개관까지로 이 기간 동안 기존 건물에 있던 유물을 증축된 신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은 도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1997.5)으로 개관하여 운영되었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 백제 사리장엄구 출토,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등 익산·군산지역 출토 국가 귀속 문화재의 국가 차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전환(2015.12) 후, 지난 3월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정식 개관되었다.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장엄구를 핵심가치로 삼아 계층별 수요에 맞는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대표문화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지난해 4월 증축을 시작하여 내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 개관할 국립익산박물관은 4개의 전시

실(2255㎡)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출토된 약 400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계기별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여 백제왕도 익산문화권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며, 가상의 입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미디어매핑과 증강현실(AR) 기술을 도입하여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과거의 역사를 실체처럼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상효 박물관장은 “이번 임시휴관은 국립익산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며 “휴관 기간 관람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쾌적한 시설과 다양한 유물 전시환경 조성 등, 지역대표 문화기관으로 다가서기 위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일원은 박물관 임시휴관과 관계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임시휴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www.iksan.museum.go.kr) 참조하거나 대표전화(063-830-090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무주에서 반딧불도 보고 태권도공연도 보고”

태권도진흥재단, 반딧불 축제 성공 기원 무료입장·연수원 개방·순환버스 운영 등

태권도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이상욱)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2019~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에서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 오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국기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무료입장을 진행한다. 또한, 태권도원 연수원을 일반인에 개방한다. 축제 관람 등을 위해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태권도원에서 숙박을 하며, 태권도원의 밤 하늘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 연수원 예약은 오는 30일까지 태권도원 홈페이지(https://www.tpf.or.kr/tl/main/index.do)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객실에 한해 예약 할 수 있다. 31일과 9월 1일에는 '태권도 문화페스티벌' 결선이 T1 경기장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화려한 발차기와 격파, 트릭킹, 태권도 융복합 창작 콘텐츠 공연 등 겨루기와 품새



를 벗어난 화려한 태권도 경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함께 4~5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1박2일 생태탐험도 진행한다.

특히, 반딧불 축제장과 태권도원 간 순환버스를 운영해 태권도원까지 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찾을 수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태권도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며 “반딧불도 보고 태권도를 통해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태권도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무성서원 관련 유물 대공개

유네스코 등재 기념 상설전시 운영

정읍시립박물관은 제3전시실에서 오는 31일부터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 '무성서원' 상설전시 코너를 신설한다.

시민들에게 무성서원 관련 유물을 공개함으로써 무성서원의 전통적 가치를 느끼고 무성서원에 대한 이해도와 시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성서원에 보관했던 최치원의 진영 2점이 먼저 공개된다. 진영은 불교의 조상신앙을 표현한 종교화로 넓은 의미에서 초상화에 해당된다.

최치원 진영 2점은 각각 1831년과 1924년에 제작된 것을 국립중앙박물관과 무성서원에서 기탁받아 정읍시립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10월 1일부터는 무성서원 현판과 주련, 고서, 무성서원지 등 관련 유물 40점이 차례대로 공개된다.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을 지속해서 알릴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연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무성서원을 주제로 한 기획특별전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상설전시와 연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무성서원 특강도 진행한다.

8월 31일에는 안성렬 태산선비문화사료관의 '무성서원의 세계문화 유산적 가치와 그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10월 5일에는 김진돈 전주문화원 사무국장의 '배향 인물로 본 무성서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한 이번 전시와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무성서원과 한국의 서원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추석 당일(9월 13일)만 휴관하며 전시와 특강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 ☎ 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